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Vol. 21 No. 12, pp. 203-212, December 2016
www.ksci.re.kr
https://doi.org/10.9708/jksci.2016.21.12.203

Disabled Continuing Education through Research Journal Trends

Seong-Bae Jeong*, Kyung-sin Kim**

Abstract

The aim of research is to analyze trends of journal in disabilities continuing education for contributing to our country disabilities continuing education activity. Studies selected by analyzing 31 papers 8 framework with leading research lifelong learners Part 4(12.9%), continuing education personnel Pt 3(9.67%), continuing education courses Pt 12(38.7%), continuing education institutions Pt 3(9.67%), continuing education system and policies part 2(6.45%), continuing education national comparative research part 3(9.67%), continuing education theory and philosophy part 4(12.9%), continuing education research methods and disciplines study was 0 pieces(0%). Suggestions include: First, establishing an integrate lifelong educator training system. Second, the suggestion that you selected the disabled welfare institutions with disabilities continuing education obligations. Third, proposal a standard disabilities continuing education course selection. Fourth, the proposal for further study research methods and disciplines of continuing education disabilities.

▸ Keyword : Disabled, Continuing Education, Continuing Learners, Research Journal, Research Trend

I. Introduction

본 연구는 학술지를 통한 장애인 평생교육 연구동향을 분석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연구가 진행되었다.

우리사회는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각종 복지제도와 지원체제의 구축, 보조공학 기기 개발 및 지원, 장애인 학교 교육 내실화 등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가운데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학교교육은 특수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고등학교까지의 교육을 제공하는 것에 총력을 기울여 장애인 학교교육도 그 성장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장애인에 대한 고등학교 교육 이후의 교육은 각 개인이 해결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이제 국가와 사회가 장애인 교육 확대에 관심을 가져 고등학교 졸업 이후까지 적용

• First Author: Seong-Bae Jeong, Corresponding Author: Kyung Shin Kim
*Seong-Bae Jeong (cellist915@Chosun.ac.kr). Dept. of Public Administration & Social Welfare, Chosun University
**Kyung Shin Kim (rapports@daum.net),School of Mok-po In-Sung Special School, Korea
• Received: 2016. 10. 25, Revised: 2016. 11. 15, Accepted: 2016. 12. 13.
• This study was supported by research fund from Chosun University, 2016.

되는 장애인 평생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주지되는 바이다.

현대사회는 그 변화의 속도가 그 어느 때보다 빨라 기존 학교교육도 그 한계가 적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인도 학교 밖에서 비형식교육, 무형식교육을 통해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데 그 해결책이 바로 장애인 평생교육일 것이다. 그런데 우리사회는 고등학교까지의 학교교육 이외의 평생교육을 거론할 수 있는 여건이 2000년대에 이르러서야 그 주장과 관련연구들이 확대되기 시작하였다[1-2].

우리나라는 이미 1973년 유네스코 한국위원에서 「평생교육발전을 위한 세미나」를 계기로 평생교육에 대한 개념과 원리가 확산되면서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도 나타나기 시작하였다[3]. 1985년 제4차 유네스코 국제성인교육회의에서 '교육조건이 정비된 상황에서 학습하는 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권리이며, 장애인이나 고령자비문해자 등과 같이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학습에서 소외되어 있는 사회적 약자의 경우에도 이것은 기본적인 권리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되면서 장애인 평생교육 필요성이 확산되어가는 추세이다[4].

다행히 평생교육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평생교육이 하나의 독립적인 연구영역으로 확립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며, 우리나라에서도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5-7].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장애인 평생교육 연구동향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그동안 S. G. Kwa and k, Y. J. Choi는 학술지를 통해 본 한국 평생교육학의 연구 동향보고가 있었고[8], N. J. Kim and J. K. Park도 특수교육 학술지를 통해 본 장애인 평생교육 연구 동향과 과제를 보고하였으며[3], J. H. Kim 등은 2000년 이후 한국 평생교육학의 학문적 동향과 과제를 보고하였으나[9], 2010년대 중반 이후 장애인 평생교육 연구동향을 다룬 연구는 찾아보기가 어렵다.

따라서 급변하는 현시대에 맞는 장애인 평생교육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평생교육 연구 방향의 현재를 살펴보고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적 제언과 발전방향을 제언하는 연구가 필요함을 재확인 할 수 있으며, 이는 의미 있는 일이라 하겠다.

본 연구의 방향과 구성은 다음과 같다. 서론에서는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연구 필요성과 목적을 소개하겠다. 이론적 배경에서는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개념 정의와 법적 근거를 살펴본 후 선행 연구를 통해 연구 분석틀의 근거를 살펴보겠다. 연구 방법론에서는 연구대상, 연구모형, 분석틀을 소개하겠다. 결과분석에서는 분석틀에 의한 연구 동향 분석 후 각 영역별로 연구결과를 소개하겠다. 결론에서는 연구결과 시사점을 중심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제도와 장애인 평생교육 후속연구에 대해 제언하겠다.

II. Theoretical Backgrounds

1. Disabled Continuing Education

「평생교육법」에 명시된 평생교육의 정의를 살펴보면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하고 있다.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3조에서는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①항 각급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교육환경을 고려하여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의 계속교육을 위한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항 「평생교육법」 제2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은 장애인의 평생교육 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별도의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항 「평생교육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평생교육진흥원은 장애인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 방안 및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④항 「평생교육법」 제20조에 따라 설치 또는 지정된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은 「평생교육법」 제2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이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제3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2013-2017)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사회통합을 위한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 영역의 추진과제로서 사각 없는 소외계층 평생학습 지원 내에 다문화 가정과 장애인 평생교육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특별히 장애성인 교육지원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제공 확대와 장애성인 평생교육 참여 기회 확대"가 포함되어 있다.

이는 오늘날 우리 사회가 너무 빠른 변화로 장애인의 경우 청소년기 학교교육만으로는 급변하는 사회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운 실정임을 짐작 할 수 있어 그 대안으로 장애인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확인된다.

2. Previous Research

그동안 한국의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연구동향을 연구한 논문은 S. G. Kwa and k, Y. J. Choi의 2005년도 연구[8], N. J. Kim and J. K. Park의 2007년도 연구[3], J. H. Kim 등의 2007년도 연구[9]가 유일한 선행연구이다. 한편, 장애인 평생교육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평생교육에 관한 연구 동향을 분석한 연구는 U. H. Jeong의 1998년도 연구와 S. H. Han의 2001년도 연구가 가장 대표적이라 할 수 있겠다[10-11]. 이와 관련해 D. Y. Kim and W. H. Park도 2013년에 일반 교육과 특수교육 분야의 평생교육 연구 동향을 분석하였다[6]. 이와 같은 선행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먼저 S. G. Kwak and Y. J. Choi의 '학술지를 통해 본 한국 평생교육학의 연구 동향'에서 평생교육연구의 동향을 살펴보기 위해 한국사회교육학회의 「사회교육학연구」와 개명된 「평생교육학연구」, 「Andragogy Today」에 실린 논문들과 한국교육학회에서 발간하는 「교육학 연구」내의 평생교육관련 논문들을 평생학습자 및 학습자 집단, 평생교육자 및 평생교육 담당자, 평생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평생교육 기관 및 현장, 평생교육제도·정책 및 시스템, 평생교육 국가비교 연구, 평생교육 패러다임 및 이념, 평생교육 이론 및 개념, 평생교육 철학 및 역사, 평생교육 학문에 관한 연구로 분류 연구하였다. 이 연구에선 평생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이 가장 많았고, 평생교육 학문에 관한 연구가 가장 적었다고 보고하였다[8].

N. J. Kim and J. K. Park은 '특수교육 학술지를 통해 본 장애인 평생교육 연구 동향과 과제'에서 12종의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9편을 분석한 결과 장애인 평생교육은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본격적으로 논의되었으며, 학문적 기반이 상대적으로 약할 뿐만 아니라 연구도 활성화되지 못했다고 진단하였다. 분석틀은 평생교육 학습자, 평생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평생교육 기관 및 현황, 평생교육 이론 및 개념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3].

J. H. Kim 등은 '한국 평생교육학의 학문적 동향과 과제: 2000년 이후를 중심으로'에서 한국 평생교육학의 학문적 동향을 분석하기 위해 이론-실천 및 정책-연구로 분석틀을 설정하였다[9].

이밖에 장애인 평생교육은 아니지만, 평생교육을 주제로 한국내외 학술지 연구 동향을 분석했던 U. H. Jeong은 기존 연구 분류방법을 평생교육철학, 평생교육 역사, 평생교육 심리학, 평생교육 사회학,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 관련 정책, 실태 및 현황, 평가 및 효과분석, 연구방법으로 구분하여 분석틀을 제시하였고[10], S. H. Han은 평생교육학을 권역별 메타연구라는 개념으로 구분하여 평생학습자 이해, 학습자 집단 연구, 평생학습 프로그램, 평생학습 기관과 운영, 관련 제도정책, 국제비교, 메타연구와 같이 구분하는 분석틀을 제시하여 참고 된다[11].

이와 같이 평생교육의 연구동향을 분석하는 선행연구들은 각각의 연구 패턴별로 분석·정리하여 연구동향 결론을 도출해냈는데, 그 패턴과 분석방법 틀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이 8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다. 평생교육 담당자, 평생교육 교육과정, 평생교육 기관을 운영, 평생교육제도 및 정책, 평생교육 국가비교, 평생교육 이론 및 철학, 연구방법 및 학문 연구로 정리되어진다.

한편, D. Y. Kim 등은 '일반교육학 분야와 특수교육학 분야의 평생교육 연구 동향 분석'을 통해 평생교육이 독자적인 영역으로 발전해야 하며, 장애인 평생교육을 안내할 평생교육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구가 시급하다고 강조함으로써 본 연구와 같은 장애인 평생교육연구 동향 연구의 필요성을 뒷받침하고 있다[6].

III. Research Methods

1. Research Model and Analysis Targ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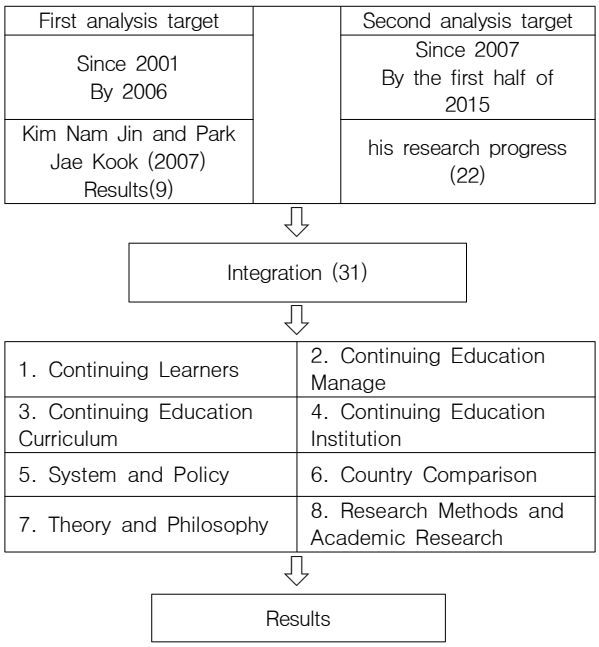

Fig. 1. Research Model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크게 제 1분석대상과 제 2분석대상으로 나눈 후 이를 다시 통합하여 최종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먼저 제 1분석대상은 대표적 선행연구인 N. J. Kim and J. K. Park의 2007년도 연구에서[3] 분석 대상 논문으로 사용되었던 H. J. Park and S. H. Park의 2001년도 연구부터[12] 출발하여 2006년까지 보고된 논문 9편을 분석하였는데, 이를 본 연구의 제 1분석 대상으로 정하였다.

다음으로 제 2분석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한국 학술지(한국연구재단 등재 후보 이상)에 게재된 모든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연구를 대상으로 삼았다. 논문 선정을 위해 한국교육학술정보원(KRISS), 국립중앙도서관, 국회전자도서관 등의 검색 사이트에서 키워드를 평생교육과 장애로 하고, 2006년 이후로 분류하였다. 국립중앙도서관은 평생교육으로 검색된 논문은 405편이었으며, 장애로 결과 내 검색을 실시한 결과 12편, 2006년 이후 12편이 검색되었다. 국회전자도서관은 평생교육으로 검색된 논문은 833편, 장애로 결과 내 검색한 결과 34편, 2006년 이후 15편으로 축소되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KRISS)의 경우 평생교육으로 검색된 논문은 3,876편이었으며, 장애로 결과 내 검색한 결과 221편, 2006년 이후로 검색한 결과 최종 138편이었다. 이 가운데 본 연구 목적에 맞게 검토된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논문은 2007년부터 2015년 상반기까지 학술지에 게재되었던 22편이 제 2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앞서 소개된 제 1분석대상 논문 9편과 제 2분석대상 논문 22편을 모두 통합한 후 총 31편의 논문을 본 연구의 최종 분석대상으로 삼고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Table 1>에 나타난

분석틀에 의한 8가지 영역으로 분류하여 본 연구결과를 나타내겠으며, 이에 따른 연구 모형은 <Fig 1>로 나타내었다.

2. Analysis Framework

본 연구의 분석 틀은 S. G. Kwak and Y. J. Choi이 제시한 틀을 앞선 선행연구 정리를 근거로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8] 평생학습자, 평생교육 담당자, 평생교육 교육과정, 평생교육 기관, 평생교육제도 및 정책, 평생교육 국가비교, 평생교육 이론 및 철학, 평생교육 연구방법 및 학문 연구와 같이 8가지로 구분하여 선정하였으며, 그 기준에 따른 내용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Framework paper

standard	Contents
1. Continuing Learners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and attributes of learners, A study on a group of students with homogeneous characteristics such as women, the elderly, disabled, Includes experiences on life and growth of learning groups
2. Continuing Education Manage	Research on the person who takes charge or manages the professor's role in the program, Problems with roles and status, Discussion of expertise, The process of training Continuing education teachers and their performance, Including job satisfaction study
3. Continuing Education Curriculum	Program development and process research, Includes program design, implementation, evaluation methods, methods, Theoretical principles and guidelines for program development, Teaching-learning method
4. Continuing Education Institution	The role and development direction of universities and adult education institutions, Characteristics and Problems of Adult Education Institutions, Survey and field study on educational field
5. System and Policy	Institutional assessment, Research that suggests problems, research on policy
6. Country Comparison	Foreign Studies, Foreign Trends, Policy, institution, history, ideology, Comparison with foreign countries and Korea, Comparison between foreign and other foreign countries
7. Theory and Philosophy	Learning theory, Theoretical Approach, Education Philosophy, History Research, Philosophical Analysis, Philosophical Meaning
8. Research Methods and Academic Research	Research method, Academic identity, A study on the theory and research methods of Continuing education

IV. Result Analysis

Table 2. Research Category

Subject area	Number (ratio)	Author(year)
1. Lifelong Learners	4(12.9)	K.Y. Kim(2011)[13] K.Y. Kim(2012)[14] I.S. Jeong(2005a)[15] D.Y. Kim and(2014)[16]
2. Continuing Education Manager	3(9.67)	D.Y. Chung et al.(2003)[17] B.S. Seo, S. W. Ahn(2006)[18] B.S. Seo and(2014)[19]
3. Continuing Education Curriculum	12(38.7)	D.Y. Kim, W.H. Park(2013)[6] H.J. Park, S.H. Park(2001)[12] S.H. Park(2004)[20] H.O. Park(2011)[21] A.S. Lim(1996)[22] J.Y. Son et al.(2015)[5] M.H. Yoon et al.(2006)[1] H.D. Jeong, S.B. Lee(2007)[23] S.B. Lee, H.D. Jeong(2007)[24] H.J. Shin, E.S. Choi(2010)[25] D.Y. Kim et al.(2014)[26] Y.W. Kim et al.(2011)[27]
4. Continuing Education Institution	3(9.67)	D.Y. Chung et al.(2004)[28] D.Y. Kim, W. H. Park(2013)[29] K.W. Lim et al.(2010)[7]
5. System and Policy	2(6.45)	E.H. Beak et al.(2001)[2] I.S. Jeong(2005b)[30]
6. Country Comparison	3(9.67)	I.S. Jeong(2007)[31] K.Y. Kim(2011b)[32] D.Y. Chung(2012)[33]
7. Theory and Philosophy	4(12.9)	S.W. Kang(2013)[34] Y.S. Oh, W.H. Park(2008)[35] H.I. Park, W.H. Park(2011)[36] B.J. Yoo(2000)[37]
8. Research Methods and Academic Research	0(0)	
Sum	31(100)	

본 연구 분석 틀에 의해 연구 대상 논문을 분석 후 각 영역별로 구분된 결과는 1)평생학습자 4편(12.9%), 2)평생교육 담당자 3편(9.67%), 3)평생교육 교육과정 12편(38.7%) 4)평생교육 기관 3편(9.67%), 5)평생교육제도 및 정책 2편(6.45%), 6)평생교육 국가비교 3편(9.67%), 7)평생교육 이론 및 철학 4편 12.9%), 8) 평생교육 연구방법 및 학문 연구 0편(0%)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 분석 틀에 의한 각 세부 영역별 분석내용은 <Table 2>와 같다.

1. Lifelong Learners

평생학습자 영역은 장애를 가진 성인(이후, 장애성인으로 통일)으로서 평생교육을 받았거나 받기를 희망하는 이들의 요구나 특징에 대한 영역으로 4편의 논문이 있었고, 분석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I. S. Jeong은 '정신지체 성인의 평생교육 요구 분석'에서 장애인 평생교육 요구를 분석한 결과 장애인복지관에서 평생교육 관련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일상생활기술과 직업 관련 교육을 희망했고, 일반대학 내에 정신지체 성인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요구가 높다는 것을 밝히면서 장애성인의 직업, 일상생활, 여가에 관한 상담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장애인 평생교육사 양성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였다[15].

K. Y. Kim은 2011년과 2012년에 발표된 두 논문에서 발달장애 성인학습자의 평생학습 저해요인은 발달장애 성인학습자의 학습자의 특성, 교육기관과 시설의 부족, 국가의 정책과 지원부족 등을 지적하면서 발달장애 아동의 학령기 이후 교육참여 촉진요인은 정부의 교육비용 지원, 고등교육 의무화, 부모들의 적극적인 교육권 주장, 통합 환경 구축 등을 주장하였다[13-14]. 특히, D. Y. Kim 등은 시각중복장애 성인의 경우 75.8%가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없음을 보고하면서 시각장애인이 평생교육에 참여하지 못한 이유가 정보부족, 제공기관 부족 등에 있어 추후 장애인복지관의 활용, 장애성인의 생애단계별 평생교육 개발, 장애인 평생교육 기관에 대한 평가단 구성과 함께 장애인 평생교육사 양성을 주장하였다[16].

2. Continuing Education Manager

평생교육 담당자 영역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에서 교수의 역할을 담당하거나 관리하는 자의 역할과 위상, 전문성, 양성과정 및 수행력, 직무만족도 등에 대한 연구로 3편이 있었으며, 분석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D. Y. Chung 등의 연구는 장애인 평생교육은 생애단계별로 간격이 없이 공적 지원과 장애인 전담 평생교육기관의 확충은 물론 일반인을 위한 평생교육기관 등 지역사회 내의 다양한 기관과 시설에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설치·운영을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자의 요구분석이라고 보고하였다[17]. B. S. Seo and S. W. Ahn과 B. S. Seo 등은 장애인 관련 교사나 종사자는 장애인에 대해 다름없는 존재, 도움이 필요한 대상, 힘의 잠재, 제한과 불편함, 삶의 동반자라는 5가지 은유적 주제로 범주화하면서 장애인의 성장 가능성을 강조하면서 평생교육이 그 해결책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18-19].

3. Continuing Education Curriculum

평생교육 교육과정 영역은 평생교육 관련 기관에서 가르치고 있는 교과목 및 프로그램 기획에서 실행과 평가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개발과 실태분석 및 요구분석 논문으로 11편 있었고, 본 연구에서 분류된 연구영역에서 가장 많은 논문이 포함되어 있는 영역으로 분석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D. Y. Kim and W. H. Park은 873개의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명칭, 목적, 내용, 대상, 형식, 장소를 기준으로 프로그램 조사표를 작성하여 기초문해교육, 학력보완 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문화예술교육, 인문교양교육, 시민참여 교육과 같이 6개 영역을 근거로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대분류를 설정하고 중분류의 정의 및 각 영역별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가 틀을 구성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정책 근거 제시에 괄목할 보고가 있었다[6].

평생교육 관련 프로그램과 관련한 논문은 5편이었는데, H. J. Park and S. H. Park은 공동생활가정에 거주하는 성인 정신지체인들에게 자기시간 계획하기 등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선택하기와 자기 결정의 기회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면서 자발적인 활동수행을 증진이 높음을 보고하였다[12]. S. H. Park는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생활 아카데미"프로그램을 대학 내의 평생교육원에서 제공함으로써 장애성인 수강생들의 지역사회 생활기술이 향상된다는 결과와 함께 장애성인 관련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고 보급하여 장애 성인들의 사회통합에 기여해야 하며, 평생교육 교육과정을 중첩되지 않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평생교육 기관의 핵심 역할에 따라 기관의 프로그램을 특성화·전문화 하려는 노력이 요구됨을 보고하였다[20]. H. O. Park은 일반 성인들도 평생교육이 필요한데 장애인의 경우도 평생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대학이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다양한 접근이 필요함을 주장하면서 특별히 장애인 대상 지역사회 중심 직업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강조함으로써 성인 지적장애인의 지역사회 활용기술을 향상시킬수 있으며, 작업과 관련된 문제 행동을 감소시킨다고 주장하였다[21]. A. S. Lim은 시각장애 당뇨병 환자의 보행 훈련을 평생교육 주요 프로그램으로 보고, 시각장애 당뇨병환자의 보행 훈련 프로그램은 안전 극대화는 물론이며, 자긍심, 안정감, 독립적인 생활능력 등과 관련한 보행 훈련 프로그램 담당 교사역할을 강조하였다[22]. J. Y. Son 등은 장애인 야학 경험을 있는 문해교육 담당자와 교육을 받고 있는 지체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성인 문해 교육의 목적, 문해교육의 한계점, 교육적 이득 등을 분석 한 후 장애인 야학을 운영하는 인적자원이 부족하고 체계적인 문해교육 프로그램 부족으로 장애성인을 위한 문해교육 교재 개발을 제안 하면서 가정과 사회에서 장애인 문해교육이 자립생활의 중요한 요소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5].

평생교육 교육과정에 대한 논문은 6편이었는데, M. H. Yoon 등은 타 장애영역에 비해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은 1·2급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수준별 교수·학습이 가능한 교육활동인 이러닝(E-lerning)" 교육과정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재원 마련을 주장하였다[1]. H. D. Jeong and S. B. Lee는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실태 조사 결과 장애인 평생교육과정 운영상1일 운영시간은 2시간이 가장 바람직하며, 장애인 평생교육에 필요한 재정은 지방정부가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23]. S. B. Lee and H. D. Jeoung은 장애인 본인과 부모 모두가 장애인 평생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으나,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장애인 평생교육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은 1년 미만의 단기 강좌 중 직업교육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이 바람직함을 주장하였다[24]. H. J. Shin and E. S. Choi는 장애인

평생교육에 참가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인터뷰 한 결과, 평생교육 참가 경험은 참가자 개인은 물론이고, 사 사회 장애물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리더십 개발, 자기인성, 자아존중감 향상과 같은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보고하였다[25]. D. Y. Kim 등은 장애인 평생교육 핵심은 우수한 프로그램이라고 강조하였다. 따라서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프로그램 질적 제고를 위한 대책이 시급함을 호소하면서 평생교육 기관 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의 질이 절적한지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26]. Y. W. Kim 등은 비장애인들에 비해 평생교육의 기회 및 교육내용과 프로그램이 부족하며,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직업교육 중심의 평생교육 모델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27].

평생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에 대한 법적 근거를 살펴보면 평생교육법 제6조(교육과정 등)에서 평생교육의 교육과정·방법·시간 등에 관하여 이 법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자가 정하되, 학습자의 필요와 실용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평생교육 교육과정에서는 주로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를 분석하는 논문이 주를 이루고 있다.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 분석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의 개발, 시행, 평가와 같은 교육과정 전반을 어우를 수 있는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4. Continuing Education Institution

평생교육 기관 영역은 장애 성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곳으로 교육기관의 실제와 문제 등을 연구한 논문으로 3편이 있었고, 분석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D. Y. Chung 등은 지역사회 장애인 평생교육 기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기관 간 네트워크를 통해 기관의 전문성을 강화 시스템 필요성을 강조하였다[28]. D. Y. Kim and W. H. Park은 전국장애인야학을 조사한 결과, 장애인야학은 본래의 목적인 기초문해교육이나 학력보완교육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장애인 야학은 직업능력향상 교육을 제외하고 나머지 영역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있으므로 장애인 야학이 명실공이 대표적인 장애인 평생교육시설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29]. K. W. Lim 등은 기관종사자와 장애인 모두 전문기관 설립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전문기관의 역할로 장애인의 요구와 특성에 맞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개발 및 보급을 가장 많이 요구하고 있었으며, 전문기관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예산 마련이라고 주장하면서 대학부설 평생교육 기관이나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 교육과정에 장애성인의 참여율이 낮음을 지적하면서 그 저해 요인을 분석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7].

5. System and Policy

평생교육 제도 및 정책 영역은 평생교육 관련 제도와 정책수립을 위한 연구와 현재의 평생교육 제도와 정책의 대책을 제시하는 논문으로 2편이 있었고, 분석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E. H. Beak 등은 일반인과의 통합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 정부의 재정적 지원 노력, 평생교육 프로그램 전문가 육성의 필요성과 함께 평생 교육의 장애 영역별 요구에 따라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이 차별화되어야 하며, 직업뿐만 아니라 여가, 가정생활 등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 등을 제안 하였다[2]. I. S. Jeong은 장애성인의 평생교육 관련 기구 및 정책에 있어서 일반적인 평생교육기관에서는 장애성인 평생교육에 관한 내용이 거의 나타나 있지 않았다. 장애성인 평생교육관련 기구에서도 종합적인 장애성인 관련 교육정책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이 정한 권리보장, 지역사회 중심의 교육여건 마련, 장애성인도 일반평생교육기관을 활용 할 수 있는 통합의 평생교육 여건을 마련해야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30].

6. Country Comparison

평생교육 국가비교 영역은 외국의 평생교육을 소개하거나 우리나라와 비교 등을 연구한 영역으로 3편이 있었으며, 분석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I. S. Jeong은 미국의 경우 연방, 주, 지역수준에서 행정, 입법, 사법이 관련되어 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미국의 장애인 지원기관은 국가 및 지역수준에서 중등교육과 전환을 위한 국가센터(NCSET: National Center on. Secondary Education and Transition), 국가정보센터(NICHCY: National Information Center for Children and Youth with Disabilities), 지역사회 발달장애 조직(CDDO: Community Developmental Disabilities Organization)등이 있어 16세의 전환서비스 시작, 아동 강점 고려 평가, 높은 질의 교사, 부모의 권리 중요성, 미국의 장애인 지원체제를 예로 들면서 우리나라장애인 평생교육 근거 마련을 위해 법제화 및 특수교육 행정 체제의 확대, 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를 국립특수교육원 내에 설치를 제안 하였다[31]. K. Y. Kim은 국외 발달장애성인의 고등교육은 대학주도형으로 이뤄지고 있고, 발달장애 성인의 고등교육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고등교육은 대학중심의 학무보완교육과 자아실현과정이 통합되어 진행되고 있다고 하였다. 국내 발달장애 성인의 고등교육은 평생교육원 또는 사회복지 평생교육시설 주도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부지원이 부족하며, 주로 사회복지관 중심의 생활중심교육과정과 직업준비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활발한 통합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 등을 문제로 지적하였다[32]. D. Y. Chung은 지적장애학생들의 중등과정 이후 교육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미국의 지적장애학생 중등과정 이후 교육과 관련된 법률과 그 현황을 고찰 하였다. 미국의 지적장애학생을 위한 중등과정 이후 교육현황과 실제를 분석하여 미국의 지적장애학생을 위한 중등과정 이후 교육경로와 교육모형의 현황과 실제는 우리나라 지적장애학생의 중등과정 이후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중등학교와 대학이 이중 또는

동시 등록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교육경로를 다원화하여 혼합 혼성모형과 통합모형을 개발하여 교육모형을 다양화하고, 이를 위하여 인간중심계획, 교육적 코칭, 멘토링 등을 제도화를 주장하였다[33].

7. Theory and Philosophy

평생교육 이론 및 철학 영역은 평생교육에 대한 이론적 접근과 해석, 평생교육의 패러다임에 대한 연구, 평생교육 개념을 철학적 의미와 분석 등과 관련한 영역으로 4편의 논문이 있었으며, 분석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S. W. Kang은 정신지체 성인 평생교육의 필요성과 지원방안은 법률과 문헌고찰을 거쳐 그 당위성과 방향성을 명료화 한 결과 인간으로서 정신지체 성인은 사회구성 성인이며 동등한 교육권과 잠재력에 대한 이론적 철학을 강조하면서 사회구성체인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나 동일한 권리로서 평생교육권이 보장되어야 함을 필역하였다[34]. Y. S. Oh and W. H. Park은 UN 장애인권리협약에 반영된 장애성인 평생교육은 우리나라에서는 학력보완형 문자해득교육에 초점이 맞춰진다. 이러한 개념적 특성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구체적으로 반영된다. 하지만 UN장애인권리협약과 같은 국제 규약에서 제시하는 장애성인 평생교육은 장애인의 시민적 참여를 지원하는 포용하는 교육적 철학을 강조 하면서 우리나라 장애성인 평생교육도 보편적이고 포용적인 교육철학 이념에 맞춰 배움을 통한 돌봄과 배려, 인권과 민주적 시민의식, 자립적 삶을 구현하는 교육이념에 바탕을 두어야 함을 강조하였다[35]. H. I. Park and W. H. Park은 단군신화의 백일을 통해 장애인에게 내재된 배움과 본능과 장애인 평생학습의 이론적 의미를 고찰하였다. 이는 단군신화의 100일중 21일은 배움의 본능이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이에게 주어져 있음을 의미하며, 79일은 모든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인간이 평생 동안 학습하는 과정을 의미해 장애인이 평생교육 과정에서 결코 소외되어서는 안되고, 특수교육의 이론적 페러다임이 단순한 이론적 교육접근을 넘어 새로운 거시적 방향으로 전환해야 함을 필역하였다[36]. B. J. Yoo는 Paulo Freire 교육철학을 분석하면서 개인적 비극에 대한 공감대 없는 특별대우는 그들에게 더 큰 고통이며, 정신지체인들이 우리 사회에서 겪게 되는 고통에서 해방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사회 인식의 변화에 기여할 수 있는 평생교육에 대한 의식 변화가 필요함을 보고 하였다[37].

8. Research Methods and Academic Research

장애인 평생교육학의 연구방법 및 학문연구 영역은 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한 연구방법에 대한 논의나 연구 방향성을 제시한 영역으로 현재까지 1편의 논문도 발표되지 않아 본 연구에서도 분석된 논문은 없었다. 하지만,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음에도 본 연구의 분석틀인 평생교육학의 연구방법과 학문연구방법으로 관련 선행연구를 적용해 연구 결론에 참고하도록 하겠다.

K. H. Kim는 '평생교육 연구방법 탐색-반성적 실천연구'를 통해 반성적 실천연구는 구체적 실천 상황에 처한 행위자가 어떻게 변화의 모습을 찾아가고 만들어 가는가에 대한 탐구를 하는 데 적합한 연구방법이라고 했으며, 평생학습을 통해 변화의 모습을 찾고 만들어가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한 능력으로 부각된 평생학습 시대에 듀이의 과학적 탐구이론에 근거한 반성적 실천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38]. C. G. Yoon은 '평생교육연구에 있어서 질적연구방법 선택 기준 정립에 대한 소고'를 통해서 기존의 다양한 연구방법 선택기준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실체적 관심'과 '인식론적 관심'을 포함하는 연구목적이 연구방법의 선택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39]. Y. S. Kim은 '평생교육학 분야의 질적 연구 동향분석(2000년-2013년)'에서 연구주제로는 '평생학습자', 연구목적으로는 '이해', 연구 참여자 유형으로는 '일반성인', 연구유형으로는 '기본적 질적 연구', 자료수집 방법으로는 '개별 면담', '자료분석 방법'으로는 '언급없음', 타당도 확보방안으로는 '참여자 확인'이 가장 많이 활용된 것으로 분석되었다[40]. Creswell의 연구 방법론상 질적연구는 학문적 엄밀성과 신뢰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평생교육학 분야에서 연구 동향 분석 시 질적 연구방법론에 대한 추가 논의 및 보다 엄밀하고 체계적 질적 연구 수행을 위한 방법론적 고민이 요구 된다고 하였다[41].

V. conclusion

본 연구는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학술지 연구동향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 기여에 목적을 두고 연구가 진행되었다. 선행연구를 통한 8개의 분석 틀을 선정하여 31편 논문을 분석 한 연구결과 평생학습자 4편(12.9%), 평생교육 담당자 3편(9.67%), 평생교육 교육과정 12편(38.7%), 평생교육 기관 3편(9.67%), 평생교육제도 및 정책 2편(6.45%), 평생교육 국가비교연구 3편(9.67%), 평생교육 이론 및 철학 4편 12.9%), 평생교육학 연구방법 및 학문연구 0편(0%)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에서 시사하는 바를 중심으로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추후 정책과 연구 방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언 하고자 한다.

첫째, 통합 평생교육사 양성을 제언한다. 본 연구 결과 가운데 장애인 평생교육의 욕구가 있음에도 관련 프로그램 부족과 장애인 평생교육 전담자 부재 등의 문제 제기가 적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한 연구(J. Y. Son, D. Y. Kim 등, A. S. Lim)와 선행연구에서 장애인 평생교육을 전담할 장애인 평생교육사 필요성을 제기했던 점(D. Y. Kim 등, I. S. Jeong)이 주목되어진다[5, 16, 22, 29, 30]. 이에 장애인 평생교육만을 전담할 인력 양성 필요성이 확인된다 하겠다. 그렇다면 기존 평생교육사와 장애인 평생교육사를 구별하는 것보다 지금 현재 양성되어 있는 평생교육사에게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대학의 특수교육과에서 평

생교육사 관련 과목을 추가하여 통합 평생교육사를 양성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고, 현실적 측면에서 평생교육 발전에 기여할 것을 판단되어진다. 나아가 통합 평생교육사 양성은 평생교육 관련 프로그램 개발과 사회통합에도 기여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 장애인 복지관을 장애인 평생교육 의무기관으로 선정할 것을 제언한다. 본 연구 결과에서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연구들(D. Y. Kim and W. H. Park, K. Y. Kim, D. Y. Chung 등)이 있었던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6, 14, 17]. 장애인복지관은 전국 지방 자치단체별로 대부분 1개 이상 설치로 장애인 접근성과 장애인교육에 대한 경험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몇몇 연구에서는 시민단체나 다양한 공적 기관이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였지만,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 바로 접근성이라는 점을 간과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이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경험이 풍부한 특수학교와 특수교사를 양성하는 대학의 특수교육학과를 활용하는 장애인 평생교육도 바람직할 것이지만, 교육장소 만큼은 장애인 복지관으로 선정해 장애성인 접근성에 따른 효과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는 장애성인의 접근성이 높은 곳이어야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성공확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 하고자 한다.

셋째, 표준 장애인 평생교육과정 선정을 제언한다. 본 연구 결과에서 가장 많은 연구 분야가 교육과정 분야로 12편의 연구가 이루어졌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표준화된 장애인 평생교육과정 선정은 어쩌면 기준이 없어 너무나 다양한 종류의 교육과정으로 신뢰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을 반듯이 잡아주어 그 중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어지는 바 조속히 표준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다만, 다양한 장애를 가진 장애성인의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평생교육과정의 표준화작업과 함께 융통성과 유연성을 가진 교육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장애인 평생교육의 연구 방법 및 학문분야에 대한 추후 연구를 제언한다. 본 연구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그동안 우리나라에선 평생교육의 연구 방법 및 학문분야에 대한 연구는 단 1편도 학술지에서 발표되지 못했다. 또한 본 연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도 연구 방법론의 합당성을 모색하는데 선행연구의 부족함과 연구 방법론의 선택여지에 대한 고민이 적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처럼 기존 연구 동향과 연구방법 자체를 연구하는 노력의 중요성은 결코 낮지 않음을 확신한다. 따라서 추후연구에서는 장애인 평생교육 연구들이 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 연구방법 및 학문분야를 연구하는 노력이 활발히 진행되기를 바란다.

Reference

[1] M. H. Yoon, J. K. Park, C. M. Park, E. G. Lee, ,H. S. Lim, S. H. Kim, "Survey of e-learning lifelong education for handicapped person in Busan area," The Korean Journal of Visual Impairment, Vol. 22, No. 2, pp. 159-832, June 2006.

[2] E. H. Beak and S. C. Kwak, U. B. Jeon, In Jong Kim, "The Status of Lifelong Learning Program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in Korea," Korean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Vol. 36, No. 1, pp. 169-205, March 2001.

[3] N. J. Kim and J. K. Park, "The Analysis and Problem Awaiting Solution of Lifelong Education in Domestic Special Education Research," Korean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Vol. 41, No. 4, pp. 215-234, Dec. 2007.

[4] S. H. Han, K. A. Kim, J. E. Lee, "Lifelong Learning System in Scandinavian Countries : The Old Future," Asian journal of education, Vol. 7, No. 4, pp. 139-166, Dec. 2006.

[5] J. Y. Son, M. Y. Kim, S. D. Hong, "Experiences and Perceptions on Literacy Education in the Night School for Adult Learners with Disabilities," Korean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Vol. 14, No. 1, pp. 129-154, March 2015.

[6] D. Y. Kim and W. H. Park, "A Study on the Classification System of Lifelong Education Program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Korean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Vol. 48, No. 2, pp. 245-271, June 2013.

[7] K. W. Lim, Y. R. Lee, S. C. Kwak, "The Status of Lifelong Education and Improvement Plan for Adult with Disabilities," Journal of Emotional & Behavioral Disorders, Vol. 26, No. 4, pp. 207-247, Dec. 2010.

[8] S. G. Kwak and Y. J. Choi, "The Research Trends of Korean Lifelong Education Represented from the Academic Journals," Journal of Lifelong Education, Vol. 11, No. 1, pp. 91-114, March 2005.

[9] J. H. Kim, Y. H. Ko, S. H. Sung, "An analysis of the academic tendencies and the developmental tasks of korean lifelong education since 2000," Journal of Lifelong Education, Vol. 41, No. 4, pp. 89-122, Dec. 2007.

[10] U. H. Jeong, "Academic Development Process and Future of Social Education, 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Education 1997 academic

seminar Presentation paper," pp.121, 1997.

[11] S. H. Han, "Meta-cognition of adult education, Journal of Lifelong Education, Continuing Education : Trends and Challenges," Seoul ; Education Science Publishers, pp.201-204, 2001.

[12] H. J. Park and S. H. Park, "Effects of the Instruction of scheduling training for Adults with Mental Retardation in group home," Communication Sciences and Disorders, Vol. 6, No. 1, pp. 236-266, March 2001.

[13] K. Y. Kim, "Lifelong Learning Participation of Adult Learner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y," The Journal of Lifelong Education and HRD, Vol. 7, No. 4, pp. 119-140, Dec. 2011.

[14] K. Y. Kim, "In-Depth Interview with Parents on Participation in Transition Education after School-Age for the Studen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y," The Journal of Developmental Disabilities, Vol. 16, No. 2, pp. 1-21, June 2012.

[15] I. S. Jeong, "A Study on the Current Status in and Improvement strategies for the Lifelong Education of adults with Disabilities,"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Vol. 12, No. 1, pp. 75-98, March 2005a.

[16] D. Y. Kim, H. Y. Kim, J. Y. Hong, "The Status and Need Analysis of Life-long Education among People with Visual Impairments and Other Disabilities," The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Vol. 15, No. 4, pp. 199-228, Dec. 2014.

[17] D. Y. Chung, D. I. Jeong, I. S. Jeong, "Directions of Supports for Lifelong Educations for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The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Vol. 2, No. 1, pp. 55-35, March 2003.

[18] B. S. Seo and S. W. Ahn, "Metaphors Analysis of Lifelong Education Institute Workers Concerning People with Disabilities,"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 Rehabilitation Science, Vol. 53, No. 3, pp. 87-109, Sep. 2006.

[19] B. S. Seo, J. k. Park, L. G. Park, "Metaphor Analysis of Lifelong Education Institute Workers Concerning Lifelong Education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The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 Theory and Practice, Vol. 15, No. 3, pp. 191-214, Sep. 2014.

[20] S. H. Park, "An Overview and Effects of the Adult Education Program for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t a University Affiliated Continuing Education Center, Korean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Vol. 39, No. 1, pp. 39-75, March 2004.

[21] H. O. Park, "The Effect of the Community Based Vocational Education Program on Community Use Skills and Problem Behaviors of Adult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The Journal of Developmental Disabilities. Vol. 15, No. 2, pp. 79-94, June 2011.

[22] A. S. Lim, "Gait train of Diabetic patient," The Korean Journal of Visual Impairment, Vol. 12, No. 1, pp. 75-84, March 1996.

[23] H. D. Jeong and S. B. Lee, "A Study on the Analysis of the needs and Managements's status of the Program for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of Lifelong Education Institute in Chungnam,"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Vol. 14, No. 1, pp. 24-45, March 2007.

[24] S. B. Lee and H. D. Jeoung, "A Study on the Analysis of the Needs of the Lifelong Education of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in Chungnam area," Korean Journal of Physical, Multiple, & Health Disabilities, Vol. 50, No. 3, pp. 23-39, Sep. 2007.

[25] H. J. Shin and E. S. Choi, "Lifelong Education Leadership Development of the Adults with Disabilities," The Journal of Lifelong Education and HRD, Vol. 6, No. 4, pp. 209-231, Dec. 2010.

[26] D. Y. Kim, H. Y. Kim, W. H. Park, "The Open Orientation Degree Analysis of Lifelong Education Program in Welfare Center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Korean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Vol. 48, No. 4, pp. 359-383, Dec. 2014.

[27] Y. W. Kim, J. H. Woo, J. H. Park, "A Basic Study on Developing Lifelong Education model centered on Vocational Education for social particip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Korean Journal of Physical Multiple Disabilities, Vol. 54, No. 1, pp. 237-256, March 2011.

[28] D. Y. Chung, D. I. Jeong, I. S. Jeong,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Direction of Inter-agency Collaboration System for Lifelong Education of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Interdisciplinary Journal of Adult & Continuing Education, Vol. 7, No. 1, pp. 1-34, March 2004.

[29] D. Y. Kim and W. H. Park, "Lifelong Education Program Open Orientation Degree Analysis in

Korean Night School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The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Vol. 14, No. 4, pp. 1-25, Dec. 2013.

[30] I. S. Jeong, "A Study on the analysis of the needs for supporting the Lifelong Education of Adults with Mental Retardation," Korean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Vol. 40, No. 2, pp. 207-232, June 2005b.

[31] I. S. Jeong, "The Foundations and Implications of Lifelong Education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in the U.S," Korean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Vol. 41, No. 4, pp. 173-193, Dec. 2007.

[32] K. Y. Kim, "A comparative Study on the higher Education-Program for Adult Student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n Korea and Overseas," The Journal of Developmental Disabilities, Vol. 15, No. 4, pp. 1-20, Dec. 2011b.

[33] D. Y. Chung, "The Current Status and Implications of Post secondary Education for Studen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y in U.S.A," Journal of Intellectual Disabilities, Vol. 14, No. 4, pp. 27-53, Dec. 2012.

[34] S. W. Kang, "Lifelong Education for adult with disabilities: from exclusion to inclusion," Journal of Lifelong Education, Vol. 19, No. 1, pp. 55-84, March 2013.

[35] Y. S. Oh and W. H. Park, "A Study on Necessity and Support Method of Lifelong Education for People with Mental Retardation," Journal of Lifelong Education, Vol. 14, No. 4, pp. 83-101, Dec. 2008.

[36] H. I. Park and W. H. Park, "Erudition and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for Realizing Lifelong Learning Through Dangun-mythology's 100days," The Journal of SEC, Vol. 3, No. 2, pp. 41-55, 2011.

[37] B. J. Yoo, "The meaning of the Paulo Freire's pedagogy for the adult education of the mentally retarded," Korean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Vol. 7, No-. pp. 27-46, Dec. 2000.

[38] K. H. Kim, "A Research Method for Lifelong Education - Reflective Action Research," Journal of Lifelong Education, Vol. 15, No. 4, pp. 55-80, 2005.

[39] C. G. Yoon, "Establishing criteria on selecting a research method among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Journal of Lifelong Education, Vol. 19, No. 4, pp. 1-26, 2013.

[40] Y. S. Kim, "Trend Analysis of Qualitative Research on Lifelong Education(2000-2013)," Journal of Lifelong Education, Vol. 20, No. 3, pp. 135-166, 2014.

[41] J. Creswell,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3rded.)." Thousand Oaks, CA: Sage. 2013.

Authors

Seong-Bae Jeong received his Ph.D. from the University of Daejeon in 2006. In 1998, he was a professor at Seong Hwa University. He is currently an assistant professor of administrative and welfare at Chosun University. The elderly, social welfare, and addiction rehabilitation are areas of interest.

Kyung-Shin Kim received the Ph.D degree in Special Education from Chosun University, Korea in 2008. She is a special teacher at Mok-po In-Sung Special School. Dr. Kim had worked as an adjunct professor for 3 years at Sae Han University, Seoul, Korea in 2012-2014. She is currently an adjunct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preschool education at Mok-po Science University. She is interested in intellectual disability of transition education and life long education.